

北韓의 國文學 體系 概觀*

成賢慶

- I. 서론
 II. 북한 국문학의 상위 체계
 III. 북한의 국문학 체계
 IV. 결론

I. 서론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결과, 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속속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는 관(官)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이루어진 성과들뿐만 아니라, 학회나 개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들까지 포함된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완성되었음.

- 1) 이런 논의들 가운데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논저들이 있다 (논의의 편의상 출판 주체, 책명, 출판 연도만 간단히 언급할 것임). 관의 지원으로 출판된 것 가운데 문학에 관한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간의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91), 북한연구소 발행의 『북한총람(1983~1993)』('94), 문화체육부 발행의 『김정일 문예관 연구』('96), 통합문화연구소 발행의 『김정일과 북한 문화예술』('96), 공보처가 발행한 권영민의 「

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출판물은, 권영민의 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의 제 학문 체계를 개관하는 과정의 하나로 문학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체제상 다자에 의한 공동 연구나 기획 연구의 형태를 취한 것이 많은데, 이들은 체계적인 편집과 책임 있는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에서 나온 연구서들의 적잖은 수는 북한의 국문학사 서술에 주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의 국문학사서에 대한 연구로 경도된 이유는 북한에서는 국문학사 기술을 국문학 연구의 최종 단계로 생각한다는 점, 남한에 소개된 북한의 국문학 연구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장르론이나 국문학개론 혹은 개별 장르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남한에서 행해진 북한 문학에 관한 연구는 목적지향적 성격이 강했다. 또 관심이 너무 분산되어 있거나 반대로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북한 문학 또는 북한에서의 국문학 연구 전반에 대해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작은 논문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요점을 추릴 수는 있으나 수박 겉핥기 식의 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하나의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망하게 되면, 심도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한 쪽에 치우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일정한 기획 의도와 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용의 중복이나 서술상의 비일관성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 연구자가 광범위하게 전망하면서 일관된 체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그런 단점을 지양할 수 있는

북한의 문학」(96) 등이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로는 국어국문학회 간행의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90), 고려원이 간행한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시리즈물(90), 민족문학사연구소 간행의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91), 최동호 편의 『남북한 현대문학사』(95), 김윤식의 『북한문학사론』(96) 등을 들 수 있다.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목적은 그러한 점에서 북한의 국문학 체계를 개관²⁾하는 데 있다. 실제의 논지 전개에서는 북한의 원전들이 주된 근거로 이용되며, 국내의 연구 성과는 보조적인 참고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본론의 제2장에서는 북한 국문학의 상위 체계를 조망하게 된다. 제2장의 제1절에서는 북한의 학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논하고, 제2절에서는 국문학이 북한 학계에서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게 된 이유를 검토하며, 제3절에서는 북한의 문예 정책 및 문학의 창작과 국문학 연구를 지배하는 원리로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검토하려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국문학 체계를 조망하게 된다. 제3장의 제1절에서는 문학의 존재 시기와 방식에 따른 구분 체계를, 제2절에서는 문학의 장르와 문학사 체계를, 그리고 제3절에서는 북한에서 1991년부터 간행된 『조선문학사』의 체계를 간단히 조망하려 한다.

II. 북한 국문학의 상위 체계

1. 북한의 학문 체계

북한의 학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을 대표하는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의 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연구소가 발행한 《北韓總覽》에 의하면, 김일성대학의 학부 편제는 5년제의 사회과학부와 6년제의 자연과학부로 양분되며, 인문학부는 존재하지 않는다.³⁾

2) 본고는 북한의 국문학 체계에 대한 연구로 수행되는 3개년의 과제 중 첫과제로서, 북한의 국문학 체계를 개관하는 논문이다. 제2차년도에는 북한의 국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제3차년도에는 남북한 국문학 체계 및 국문학사 체계의 비교와 통합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3) 社團法人 北韓研究所, 『北韓總覽(1983~1993)』, 1994. p.763.

상식적으로 보면 적어도 어문학, 역사, 철학에 관련된 분야는 모두 인문학부에 속해야 한다. 그런데 김일성대학에는 이러한 분야의 학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는 인문과학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⁴⁾ 각각 인간 자체와 그들의 정신적 산물, 제반 사회 현상과 제도,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상호배제적이며 他에 대해서 독립적인 영역에 속하는 학문 분야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처럼 인문과학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주목된다.

김일성대학의 편제상 사회과학부에는 역사, 철학, 정치경제학, 법학, 외국어문학, 조선어문학의 6개 학부가 속하고, 자연과학부에는 수학, 역학, 물리학, 생물학, 지리학, 자동화학, 화학의 7개 학부가 속한다. 그리고 부설 연구소로 역사연구소, 법학연구소, 경제학연구소, 어문학연구소, 철학연구소, 물리학연구소, 생물학연구소, 화학연구소, 지질학연구소, 동위원소연구소, 전산연구소가 있다.

소속 학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과학부에는 조선노동당역사학과, 세계역사학과, 법학과, 정치경제학과, 계획경제학과, 조선문학과, 도서관학과, 러시아문학과, 중국문학과, 조선역사학과, 조선고고학 및 민속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통계학과, 국가건설학과, 한문학과, 신문학과, 독일어문학과, 에스빠냐문학과, 조선어학과, 영어문학과, 불어문학과 등 22개 학과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학부에는 물리학과, 핵물리학과, 라디오물리학과, 수학과, 역학과, 화학과, 방사선학과, 동물학과, 동물생리학, 토양학과, 기상수문학과, 지리학과, 측지지도학과, 자동화학과, 지구

4) 위의 책 『北韓總覽』에서는 다른 단과대학들 가운데 인문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762쪽), 그 대학들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들의 명칭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인 편제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을 대표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인문학부가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인문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단과대학들에서도 인문과학이 인간학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존재할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물리탐사학과, 지구화학과의 18개 학과가 소속되어 있다.

인문과학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역사학부, 철학부, 외국어문학부, 조선어문학부에 속한 모든 학과들과 역사연구소, 어문학연구소, 철학연구소 등의 연구소는 모두 인문학부에 속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대학에는 아예 인문학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문과학은 사회과학의 한 범주로 종속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에 대해 자연과학적 객관성이 가능하다고 보며, 인간의 정신 현상 자체도 개조가 가능한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본다. 이것이 바로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인간관이다. 이런 관점에 따라 인문과학은 사회과학의 한 범주로 종속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과학의 자연과학적 객관성과 역사적 합법칙성에 대한 집착과 사회과학 위주로 편성된 북한 학문 체계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체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회과학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인 것이다.

북한의 학문은 정치와 맥을 같이 하며, 학문이 정치에 종속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것은 학문 활동이 학자들의 양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 사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학문 활동이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 주체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학문 활동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다. 북한에서는 모든 학문 활동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 토대에 기초하며, 혁명에 복무한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에 대한 학문의 종속성과 학문 활동의 정책적 성격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 분야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양분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2. 사회과학으로서의 국문학

주체사상에서는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⁵⁾고 주장한다. 문학에 대한 이런 관점은 문학작품의 창작과 비평 그리고 문학 연구에 대하여 평가하고 재단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된다. 문학에 관한 한 모든 가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을 창조했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다음 논의들은 주체사상에서 생각하는 문학이란 곧 인간학, 구체적으로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주체라고 보는 것이다.

(가)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 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 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문예관이다.⁶⁾

(나)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

5)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3), p.29.

6)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5. (띄어쓰기는 남한의 문법 규칙을 따랐으나 철자법은 북한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후 북한의 원전을 인용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김정일이 표한 광범위한 관심사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책을 비롯하여 김정일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논저들이 그에 의해 직접 집필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볼 때, 그의 생각과 다른 논의들이 그의 이름을 가탁하여 나올 수는 없을 것임도 분명하다.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나온 논저들은 모두 그의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저자명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으로 본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인간 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새 형의 문학이다.

주체의 인간학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도 그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주체로 형상한다. 그러한 인간의 전형은 바로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다.⁷⁾

북한에서는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이 주체이자 대상이 되며 인간의 역사와 의식과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야인 인문과학을 사회과학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 혹은 서방에서와는 달리 맑스-레닌주의적인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물론에서는 자연과학적인 객관성을 빌어 사회 현상들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유물론자들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인 모든 사회 현상들이 일정한 역사적 조건들 속에서 객관적 합법칙성을 띠면서 발전하며, 이런 역사적 조건들은 인간의 요구와 의지에 의해 개조·변형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인 주체형의 인간, 인민 속에서 나온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하여 …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데 이바지한다.”⁸⁾는 발언은 바로 이런 믿음이 문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사회 현상의 일부이며, 그들이 창조한 정신 활동의 산물인 문학조차도 자족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의 일부로 객관적 합법칙성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를 사상적 바탕으로 하는 북한에서 문학을

7) 김정일, 위의 책, p.8.

8) 한중모·정성무, 위의 책, p.41.

사회과학의 범주에 넣고, 김일성대학의 사회과학부에 속하는 6개 학부 가운데 조선어문학부를 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학관 때문에 북한에서 문학의 창작과 비평과 연구에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교조주의화된 문학관이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문학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의 창작과 연구는 상호간에 순환반복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당의 문예 정책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북한에서는 주체의 문예 이론과 그것의 구현인 실제의 작품 창작이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주체의 문예 이론은 개별 작품을 이해한 결과로 집약되고 일반화된 귀납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주체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된 선협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론은 작품의 창작을 위한 대전제로 기능하면서 작가의 창작 활동을 제어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작가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능동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화된 틀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노동당은 모든 작가들에게 연, 분기, 월별로 창작 계획을 제출하여 비준받도록 강요하며, 그 계획대로 창작을 하도록 통제를 가한다고 한다.⁹⁾ 이것은 북한에서의 작가는 고도의 정신 활동을 하는 창작가가 아니라 창작을 직업으로 하는 일종의 노동자로 전락했음을 말해 준다.

북한에서의 문예 창작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신 활동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와 검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요된 노동 활동이다. 즉 철저한 목적 아래에서 문학은 노동당의 이념과 노선을 선전 선동하는 도구로 창작되며, 그런 목적에 합치되는 창작 활동만이 유의미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조주의적인 문예관을 기초

9)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p.647-651.

로 하는 노동당의 문예 정책상 필연적인 것으로서, 북한에서의 문예 창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주체사상을 토대로 지탱하는 북한에서는 당연히 주체사상을 잘 표현했느냐의 여부가 절대적인 작품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런 비평 태도가 강압하는 현실에서 작품의 창작 활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주체의 문예 이론을 내세우는 당의 문예 정책과 실제의 창작 활동이 상호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작가들이 당의 노선에 따라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그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방법이 바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 예술의 창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원칙은 문예 창작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문학 연구까지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문학을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출간된 『문학예술사전』은 김일성의 교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자기 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렬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 방법이다.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인 맑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함으로써 새 것과 낡은 것, 혁명적인 것과 반동적인 것 간의 투쟁에서 새 것과 혁명적인 것이 승리하는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을 기본 묘사 대상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구체적인 사회력사적 환경과의 통

일 속에서 묘사한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 처음으로 착취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 성장 발전하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적 성격들이 창조된다.¹⁰⁾

이 사전은 이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 과정은 그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특성에 따라 다른데, 조선에서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시기에 그의 지도로 창조된 항일문학에서 가장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성, 노동계급성(계급성), 인민성은 북한에서 문예 창작의 지도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학 연구는 그 자체의 논리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체계 아래에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종속적인 학문 활동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국문학 자체의 체계까지도 지배하는 상위 원리가 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원리를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학예술사전』은 당성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한 높은 각성으로서 당과 수령을 정치 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며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규정하면서, “문학예술에서의 공산주의적 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맑스-레닌주의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적 기초로 하고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는 데서 표현된다.”¹¹⁾고 설명한다. 당성은 곧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며 당에 대한 충실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과 혁명의 심장이며 인민 대중의 뇌수”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등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당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시키는 문제와 직접

10)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편, 『문학예술사전』, 1989, p.497.

11) 전계 『문학예술사전』 p.196.

적으로 결부되었으며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는 것은 당성을 철저하게 표현하는 근본조건으로”¹²⁾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문학예술사전』은 계급성이란 “작가, 예술인들의 계급적 위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문학예술의 계급적 성격”이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문학예술은 일정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일정한 계급에게 복무한다. 계급사회에서 계급 밖에 있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계급을 초월한 사상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의 사회정치적 견해, 사상 미학적 리상 등도 불가피하게 계급적 성격을 띄며 그들에 의하여 창조된 문학예술 작품들도 반드시 일정한 계급의 사상과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소여계급의 위치에 서서 생활을 평가 분석하며 그 계급의 이해관계에 맞게 생활을 묘사한다.¹³⁾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이해관계와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는 문학예술만이 아니라, 피착취계급의 이해관계와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는 진보적인 문학예술도 형성되고 발전한다. 사회주의하에서도 문학예술은 계급적인 성격을 띠는 바, 이러한 문학예술이란 곧 전체 인민 대중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반영하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노동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복무하는 계급적이며 당적인 문학예술이다. 말하자면, 문학예술의 노동계급성은 “노동계급의 혁명정신의 예술적 구현”이며, “계급성의 가장 철저한 표현”이고, “노동계급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복무하는 데서 표현된다.”¹⁴⁾는 것이 그 핵심인 것이다.

12) 한중모·정성무, 위의 책, p.83.

13) 전계 『문학예술사전』 p.144.

14) 한중모·정성무, 위의 책, p.91.

“문학예술이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기 위해서는 당성, 로동계급성과 함께 풍부한 인민성을 가져야” 하는데, “문학예술이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고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서 표현”되는 것에 “인민성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¹⁵⁾ 그러한 “문학예술이라야 인민 대중을 위하여 훌륭히 복무할 수 있으며, 문학예술이 인민 대중에게 생활의 벗으로 되고 투쟁의 무기로 복무하자면 그들의 사상과 지향, 감정과 정서에 맞아야”¹⁶⁾ 한다.

인민성을 높이려면 인민 대중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는 형식과 예술성을 가져야 하며,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통속성도 지녀야 하고, 민족적인 것을 바탕으로 민족적인 특성을 뚜렷하게 구현해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예술성, 통속성, 민족성을 인민성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런 특성들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문학론이 정통 맑스-레닌주의 문학론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제대로 구현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된 문학작품이 될 수 있고, 혁명투쟁을 위한 힘있는 사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이 바로 주체의 문예관이다. 이것들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지도하고 기왕의 작품을 평가하며 문학사를 기술하는 핵심적인 원리인 동시에, 북한의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교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인 요인이다.

III. 북한의 국문학 체계

15) 한중모·정성무, 위의 책, p.102.

16) 한중모·정성무, 위의 책, p.102.

1. 존재 시기와 방식에 따른 체계

1)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북한의 문학사자들은 김일성이 이른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고 항일혁명투쟁을 시작했다고 하는 1926년부터를 현대로 보며, 19세기말부터 1926년까지는 근대로 본다. 19세기말 이전의 사회는 보편적 역사 발전의 법칙에 따라 원시 노예제시대, 고대사회, 중세 봉건시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봉건사회가 절정에 이른 조선조의 경우에는 세기별로 구분을 하고 있다. 현대도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는데, 해방 이후는 더욱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북한에서는 근대 이전의 고전문학 장르 체계를 산문문학과 운문문학으로 2대별하며, 탈춤이나 인형극이 포함되는 극문학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1991년부터 출간된 『조선문학사』에서 논의된 운문문학은 고대가요, 향가, 민요와 참요, 시조, 경기체가, 고려가요, 가사 등의 우리말 가요와 순수 한시이다. 그리고 산문문학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설화, 패설문학, 의인체 산문, 소설, 야담집 속의 단편적 산문 등이 있다.

이런 명칭들로부터 북한 국문학계에서는 장르가 아닌 시대 중심으로 문학사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고전문학의 장르에 관한 한 이론적이기보다는 역사적인 인식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르 체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의 문학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개별적인 일부의 역사 장르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설화와 민요 등 이른바 인민의 창작이라 할 수 있는 문학들이 집중적으로 수집·정리된 것은 그런 성향이 단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서술을 중심으로 보면, 원시시대 이후 고려시대 이전의 문학에 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 일반사의

흐름에 맞추어 문학의 형태를 추정하며 자료와 작품들을 해석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의도에 따라 작품을 취사선택하기도 하며 확대해석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라 문학에 대한 논의는 소략한 반면 문헌적인 증거가 확실치 않은 고구려의 설화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를 역사적인 정통(정통성을 소유·계승한 국가)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목적의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나친 취사선택과 확대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조 이후의 한문문학 연구는, 작품들이 모두 한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의 조사·발굴 및 기왕의 자료들에 대한 해석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조사·발굴된 자료들이나 기왕에도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들은 선집의 형태로 묶여지는데, 한문 자료는 번역하여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로 표기된 작품들이 모두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구분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나, 번역되고 선집으로 묶이는 것들은 그들의 문예관에 맞는, 인민 대중에게 읽힐 만한 작품들 내지는 국문학사 기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품들에 국한된다.

인민들에게 읽힐 만한 작품들이란 반착취계급적인 것들과 애국주의나 가정 윤리가 반영된 것,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당대 사회와 착취계급을 폭로 비판한 내용이 담겨진 것들을 뜻한다. 국문학사 기술을 위해 일정한 필요성을 지닌 작품들은 민족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거나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것들이다. 한글로 씌어진 소설들은,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미 인민성 및 계급성을 띤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가 활자화되고 있다. 물론 문학을 사상투쟁의 무기로 삼으려는 목적성 때문에 인민들의 구미에 맞게 윤색을 하고 있기는 하다.

북한의 문학사가들이 1926년을 기점으로 잡는 현대문학의 장르는 시문학, 산문문학, 극 및 영화문학으로 3분되어, 장르 체계가 고전문학의 그것에 비하여 분명하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문학사에서 논의되기 위

해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의 학계에서 주장하는 현대문학의 기점인 1926년 직후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극문학과 영화문학이 대단히 큰 비중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극문학이 가진 대단한 선전 선동 효과에 주목한 결과일 것인데, 또한 이런 효과 때문에 실제로도 극문학(영화문학)이 많이 창작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창작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비평의 결과가 평론집으로 묶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거의 선험적인 평가 기준을 하고 있는 주체문학론이 워낙 교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다른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해방 이전의 현대문학에서는 빨치산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동 목적의 창작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것들의 품격은 상당히 낮으며 어떤 것은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그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였다며 평가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해방 이전의 것으로 빨치산들에 의해 창작되지 않은 작품들은 비판적으로 논한다. 6.25 이후에는 오로지 북한에서 창작된 것들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은 현대는 혁명투쟁의 역사이며 사회주의의 완성이로 진행되는 시대라 하여, 역사적 합법칙성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학도 그 법칙에 합치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의 작품은 모두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도록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김일성의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소설들을 불후의 명작이라 하여 대단히 평가절상하고 있다. 예컨대 <불멸의 역사>와 같은 연작의 장편소설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고전문학에 비해 훨씬 작위적인 해석이 가해지고 있으며, 창작 작업마저도 당의 문예관에 맞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또한

북한 문학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 구술문학과 기술문학

문학은 그 존재 방식에 따라 크게 구술문학과 기술문학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한자를 빌어서 자신들의 뜻을 표시했고,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문을 빌어 의사를 소통하고 문학 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술문학, 국문 기술문학, 한문 기술문학으로 3분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북한 학자들도 또한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문학과 한문문학은 똑같은 기술문학이라고 하더라도 향유의 주체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들이 형성한 문학작품도 장르나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까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는 문학을 그 존재 방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며, 또한 그렇게 존재하는 작품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듯이, 북한에서 고전문학을 평가하는 데는 계급성과 인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인민들에 의한 집단 창작물로 볼 수 있는 설화화 민요, 참요 등의 구술문학은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이러한 구술문학에 대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구술문학에는 인민들의 정서와 생활 감정이 짙게 배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술문학 가운데는 기술된 채 구술전송이 단절된 것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 존재 방식은 논외로 하고 내용과 창작의 주체만을 주로 문체삼아서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술된 구술문학들이 많이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구술문학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많은 구술문학 작품들이 선집 또는 전집의 형태로 출간되고 있으며 문학사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집에 수록된 것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송되지 못하고

있던 작품들이다. 인민성이 깊게 배어 있는 구술문학에 관한 한, 그 존재 방식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글로 기술된 고전문학도 상당한 평가를 받으며, 인민 대중의 정서에 맞게 윤색 출판되고 있다. 이원적인 문자 생활을 하던 조선시대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평민이나 부녀자들이었으므로,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관점상 어느 정도는 인민성과 계급성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착취계급인 양반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속에 부분적으로 평민들의 삶이 투사되어 있다면, 그들은 이것을 과장하거나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반항으로 해석하여 연구의 이유와 타당성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하진양문록」이나 「쌍천기봉」과 같은 소위 가문소설들도 작품의 소재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외래 침략에 반대하여 싸우는 애국무훈담을 보여준다거나 봉건사회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하층 인민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조선시대의 국문문학은 소설이 그 주류를 차지한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한글로 문학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인민성과 계급성의 징표로 읽히는 이상 소설이 상당히 긍정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축적된 한문문학의 많은 자료와 그 작가들은 대단히 선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문인이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살았건 이후에 살았건 상관없이, 이미 그 자신이 지배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 인민성이나 노동계급성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작품의 평가준거로 삼기에 부적합한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반침략 애국주의라든가 비판적 사실주의, 혹은 진보성 등과 같은 개념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기준의 도움을 받아 외세의 침략에 격분을 토하거나 반침략적인 소재나 주제로 작품을 창작한 사람, 지배계급에 속하면서도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해 진솔히 읊은 사람들과 그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규보라든가 정약용, 혹은 박지원과 같은 사람들이 지배계급에 속하면서도 긍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국문학사 기술을 위한 전초 단계로서 새로운 자료의 조사·발굴과 같은 1차적인 작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그런데 과거의 작품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선집으로 묶여 출판되는 것은 아니며, 출판을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인민성, 계급성, 비판적 사실주의, 반침략 애국주의, 진보성과 같은 평가 기준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들은 어느 경우에도나 작품의 평가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핵심적인 기준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들이 창작한 구술문학은 그것의 현존 방식과는 상관없이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작품들이, 국문 문학의 경우 한글을 사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조건에 합치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작품들이, 그리고 한문 문학의 경우 대부분 지배계급이 향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작품들만이 선택되어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문학의 존재 방식이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별 조건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특정한 작품이 구술문학적인 속성을 가졌는지 기술문학적인 속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기술문학이라면 그것이 어떤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학자들이 국문학을 연구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려한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문학의 장르 체계와 문학사 체계

1) 문학의 본질과 장르 체계의 인식

북한 학자들은 '문학예술'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에 의한 객관적 현실의 반영'으로 보는 유물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문학을 그 자체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발생하여 존재하는 자족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현실 반영의 형식에서는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회적 의식들과 같은 의식 형태인 상부구조적 현상으로 본다. 즉 문학은 역사적 산물이며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 자체의 내재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합법칙적으로 발생한 것¹⁷⁾으로 보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학의 발생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는 구체적으로 노동기원설이라 할 수 있는데, 문학예술은 노동 과정에서 노동을 생활적 바탕과 소재로 하여 발생했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주체사상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예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창조하여 발생시킨 근본 요인이 사람의 사회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주장한다. 환언하자면,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것으로 하여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으로 되며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 문학예술도 관념론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본능이나 실천적 재능의 발현, <잠재의식>이나 <절대리념>의 소산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주적 요구에 따르는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의 결실"이라는 것이다.¹⁸⁾ 문학은 생활의 주체인 인간에 의해 창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의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곧 현실 생활의 반영인 문학예술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 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과 실천 투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되고 풍부화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목적의식에 따라 개조되고 발전·풍부화되는 것은 문학의 내용만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에도 해당된다. 문학예술의 형태는 "한편으로는 미분화상태로부

17) 정성무, 『시대와 문학예술 형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27.

18) 한중모·김정웅·김준규 공저,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학예술 형태』(평양: 문예출판사, 1992), p.25.

터 독자적인 형태들이 분화되고 한 문학예술 형태에서 여러 종류들이 파생되는 형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 예술 형태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다른 새로운 예술 형태와 종류를 산생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학예술 형태와 종류의 발생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¹⁹⁾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문예 이론가들은 문학예술의 형태와 종류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장르 체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학의 종류는 서사문학, 서정문학, 극문학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문학 종류의 이러한 분류는 문학의 세 가지 묘사 방식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학예술의 묘사 방식은 어떤 형상 수단을 써서 생활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방법과 형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문학은 언어를 재료로, 수단으로 하여 형상을 만들어내는 예술인 것(인) 만큼 문학의 묘사 방식이라고 하면 언어로써 인간과 생활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방법과 형식을 말한다. 작가들은 문학 창작에서 인간 생활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인간의 내적 체험, 사상 감정을 직접 토로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자기 이야기를 끼워넣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 펼치는 방법으로 생활을 재현하기도 한다. 이 서사적 묘사 방식, 서정적 묘사 방식, 극적 묘사 방식의 특성과 차이에 의하여 문학은 서사문학, 서정문학, 극문학의 세 종류로 구분되게 된다.²⁰⁾

북한 학자들도 문학을 서사문학, 서정문학, 극문학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문학의 장르를 구분하는 방식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수천 년간 지속된 보편적 체계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함께 붙어 다니는 문학의 ‘종류’와 ‘형태’라는 어휘에 좀 더 주목하게 되면, 그 용어들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무차별적인 명칭이 아니라 의미상의 차이

19) 한중모·김정웅·김준규, 위의 책, p.26.

20) 한중모·김정웅·김준규, 위의 책, p.12.

를 가진 것임을 알게 된다. 북한의 문예 이론가인 정성무는 종류와 형태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학의 종류와 형태는 다 같이 문학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문학예술의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문학예술 작품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여 문학예술의 종류는 일정한 부류에 속하는 문학예술 작품들을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구분되어 나오는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의 속성을 규정하여 부르는 개념이며 문학예술의 형태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다시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재차 분류하였을 때 나오는 문학예술의 갈래 또는 그에 속하는 문학예술 작품들의 속성을 종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여 주는 개념이다.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는 다 같이 문학예술의 갈래와 그에 속하는 작품들의 속성을 규정하여 주는 개념이지만 종류는 형태보다 높은 차원에서 구분된 문학예술의 갈래로서 자체 속에 문학예술의 형태들을 포섭하며 종속시키는 특성을 가지며 형태는 종류로 분류된 일정한 부류의 작품들을 다시 구체적인 갈래로 분류하여 그 속성을 특징짓는 특성을 가진다.²¹⁾

정성무의 구분에 따르면 종류는 類개념에 해당하고, 형태는 種개념에 해당한다. 요컨대 서사문학, 서정문학, 극문학은 類개념으로서 종류에 해당하고, 소설과 서사시와 설화는 서사문학에, 서정시와 가사는 서정문학에, 영화문학과 희곡과 가극대본은 극문학에 속하는 種개념으로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가 발생·발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엄격히 역사 장르인 형태에만 관련될 뿐 이론 장르인 종류에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류와 형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21) 정성무, 위의 책, p.35.

변하는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적 독자성이라는 개념은 그들이 대부분 '문학예술'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학을 다른 예술들과 함께 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예컨대 문학의 '종류'인 서사문학, 서정문학, 극문학은 다른 예술 형태인 음악, 무용, 영화 등의 문학예술 전체에서 볼 때는 문학의 '형태'이고, 묘사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각각 소설과 서사시와 설화에 대해서, 서정시와 가사에 대해서, 그리고 희곡, 영화문학, 가극대본에 대해서는 종류가 되는 것이다.²²⁾

북한의 이론가들이 문학의 종류와 형태를 구분한 사실로부터,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론 장르와 역사적 장르를 변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서 더욱 발전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에서 문학의 장르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장르론과 같은 일반 문학론 분야가 뒤떨어진 원인은 북한의 국문학 연구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문학개론과 국문학사 체계

북한에서는 문학 일반론에 대해 관심이 적었거나 연구 수준이 낮은 반면, 문학사 기술과 그것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의 자료의 조사·발굴 등 원전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편이다. 그런데 문학 일반에 대한 연구가 소략하거나 수준이 낮다고 할 때, 그것이 비단 장르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문학개론이나 국문학개론처럼 문학 일반이나 국문학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논저의 저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적어도 문학 일반론에 관한 한 전반적으로 연구 수준이 낮거나 의도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여기서 국문학사 기술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문학개론 혹은 국문학개론이 별로 기술 또는 저술되지 않는 근본적인

22) 정성무, 위의 책, p.38.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책에 실린 북한 자료의 목록이나 최동호 편저서의 부록에 의거하면 북한에서 나온 문학개론서로는 박종식에 의해 기술된 「문학개론」과 박종식·현종호·리상태 공저의 「문학개론」만이 확인된다. 필자가 확인한 자료가 북한에서 출간된 모든 논저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실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전반적으로 문학개론에 관한 그들의 관심이 소홀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출판 연도가 각각 1960년과 1964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문학개론서가 전혀 출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는 주제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변변한 국문학개론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기이한 일이라는 하지만,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국문학사가 국문학에 대한 통시적인 조망의 성격을 가진다면, 국문학개론은 공시적인 조망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문학개론서에서는 국문학사서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문학사상에 존재했던 개별 장르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북한에서 나온 국문학개론서로 정홍교·박종원·류만 공저의 「조선문학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의 내용과 서술 체계를 검토하면 사실 국문학개론서라기보다는 축약된 국문학사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통시적으로 국문학사를 개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북한에서는 문학 일반론뿐만 아니라 국문학 일반론도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역시 북한의 문예 이론에서 신조로 삼고 있는 역사주의 원칙과 '문학은 산 사람을 그리며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공산주의적인 인간학적 성격에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역사주의 원칙에 따라, 문학을 인간 의식의 자율적인 산물로서 자족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조건에 지배를 받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역사적 합법칙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문학의 발생과 발전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문학을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문학은 사람의 자주적 요구에 따르는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의 산물로, 인민 대중을 가장 힘 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철저하게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와 고통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들이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며, 인민들이 창작 주체가 된 작품들이 우선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문학을 대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한,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장르와 작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며 작가와 작품의 평가도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 원론적으로 국문학개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장르와 작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장르의 문학과 모든 작품들이 역사주의와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는 원칙에 의해 포용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다수의 장르들이 논외로 될 것이고, 그것은 민족문화 유산을 자주적으로 계승한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문학개론서다운 국문학개론서가 기술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북한에서 문학개론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폄시된 반면, 문학사가 반복적으로 기술되며 중시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문예관에 있었다고 하겠다.

중등학교의 국어 또는 문학 교과서를 통해 문학개론과 문학사의 체계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의 5학년과 6학년이 각각 「국어문학」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국어와 문학을 통합적으로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²³⁾ 이들 교과서는 작품론을

통해 문학개론과 문학사는 물론 국어 문법까지도 동시에 서술하는 통합적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논 의 수준은 전문 연구자들을 위해 쓰인 저작들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 북한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의 실재를 검토하기 위해 5학년용 교과서의 차례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해방후 문학

1. 새나라 건설 시기 문학
 - 조기천의 창작과 《백두산》
 - 개벽
2. 조국해방 전쟁시기의 영웅적 문학
 - 조선은 싸운다
 - 결전의 길로
 - 싸우는 마을 사람들
 - 성격과 전형
 - 문장과 문장성분
 - 문장의 기본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3. 전후 복구 건설시기의 문학
 - 새들은 숲으로 간다
 - 시련 속에서
 - 직맹반장
 - 평남관개시초
 - 식개울의 새 봄
 - 문학작품의 구성

23) 필자가 여기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국어문학』은 각각 1990년과 1989년에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나온 5학년과 6학년 교과서이다.

우리말 문화어를 잘 살려쓰자

문장의 부성분을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가

4. 천리마시대의 문학

길동무들

장군님의 어머니

붉은 선동원

전사들

력사의 자취

문학작품의 언어

의판성분, 문장성분의 겹침, 문장성분의 확대

문장성분의 차례

인용된 내용 중 번호가 붙은 것은 북한 현대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한 칸씩 들여서 쓴 것은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가장 들여 쓴 것은 문학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 및 국어 문법을 나타낸다. 6학년 교과서의 차례는 이것보다 좀 더 단순하기는 하지만, 설명의 방식은 대동소이하고 5학년 교과서에 수록한 이후 시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계성을 가진다. 교과서에서는 다른 국문학 연구 논저들에서와는 달리 문학의 개론적인 측면과 사적(史的)인 측면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국어교육까지도 함께 하고자 한 점은 체계적으로 짜여진 통합 교과서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런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교과서에서 국문학을 다루면서 해방 이전의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문학작품들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것도 북한의 문예관이 필연적으로 야기 또는 귀결시킨 결과이다. 그들은 문학적 발전의 최고 단계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구현된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항일혁명투쟁 이전에는 그런 문학작품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학사 인식과 접맥된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서술된 문학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이 연구자들이나 문학을 본격적으로 배우려는 초심자들을 위해 씌어져야 할 문학 일반론으로 심도 있게 이어지지 못한 한계는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최신작 조선문학사의 체계

1) 시대 구분의 체계

북한에서는 90년대 들어서 국문학사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1년부터 나오고 있는 『조선문학사』가 그것인데, 총 15권으로 기획된 중에 1996년 12월말 현재 1-5권과 8-11권이 출판 완료된 것이 확인된다.²⁴⁾ 이전에 북한에서 나온 국문학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현재 나오고 있는 『조선문학사』도 집체작의 형태이다. 북한에서의 문학사 기술은 당시까지의 문학 연구를 총결산하는 작업인 동시에 문학사에 대한 노동당의 변화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정리하는 개편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문학 연구의 체계를 개관하면서 『조선문학사』에 대한 검토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조선문학사』는 각 권마다 대표 저자와 심사자가 있는데, 그들은 번갈아 역할을 바꾸고 있어서, 상호간에 의견 조율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나온 책들의 저자는 1-2권은 정홍교, 3-5권은 김하명, 8-9권은 류만, 10권은 오정애·리용서, 11권은 김선려·리근실·정명옥이다. 심사자는 1권 김하명·한중모, 2권 김하명, 3-5권

24) 북한의 문학사 저술은 개인작이 아닌 집체작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각 권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95년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된 이유는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형편을 비교적 잘 아는 연변 학자들 가운데는 그 이유를 북한이 종이 등의 물자를 조달할 수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이유의 모든 것인지,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참고로만 부기한다.

정홍교, 8권 한중모, 9권 리동수이며, 10과 11권은 심사자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명의 공저자와 심사자가 있으며, 저자와 심사자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번갈아서 그 역할을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저자 개인이 특정 시대나 작품의 실제적인 평가 작업에서 공식적이고 평균적인 해석을 벗어나 자신만의 견해를 고집할 수 없도록 막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가 주도하여 90년대에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조선문학사』는 70년대에 출판된 동일한 제목의 5권으로 된 문학사보다 훨씬 방대하다. 따라서 대상 작품도 훨씬 늘어났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나, 본고는 70년대의 문학사와 90년대의 『조선문학사』를 직접 비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모습의 비교는 배제하고 『조선문학사』의 시대 구분 체계와 서술 체계를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 아직 출판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도에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1권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각 권의 시대 구분과 출판 기획을 통하여 『조선문학사』의 시대 구분 체계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1권 원시 ~ 9세기
- 제 2권 10 ~ 14세기
- 제 3권 15 ~ 16세기
- 제 4권 17세기
- 제 5권 18세기
- 제 6권 19세기
- 제 7권 19세기말 ~ 1925년
- 제 8권 1926년 ~ 1945년(I)
- 제 9권 1926년 ~ 1945년(II)
- 제 10권 평화적 민주 건설시기

제 11권 조국해방 전쟁시기

제 12권 전후복구 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

제 13권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제 14권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I)

제 15권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II)²⁵⁾

북한의 국문학계에서 제 7권이 포괄하고 있는 시기인 19세기말 ~ 1925년까지를 근대라고 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조선문학사』에서는 고전문학이 6권, 근대문학이 1권, 그리고 현대문학이 8권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가운데 제 1권은 원시 ~ 9세기까지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사에서 보면 그것은 원시사회에서 노예제사회인 고대국가를 거쳐 봉건제사회에까지 이르는 기간에 해당한다. 『조선문학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문학 대신 ‘발해 및 후기 신라시대’의 문학으로 구분하여 통일신라 문학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 고려 - 조선 - 북한’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정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각 권의 차례를 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시대 구분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데, 그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17세기 문학의 경우 전대에 비해서 주제 영역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대되었으며,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미학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제 영역에서는 ㉠ 거래의 운명과 관련된 역사적 사변을 반영한 애국적 주제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고, ㉡ 봉건사회의 불합리성과 양반 사대부들의 부패 타락상을 폭로 비판하고 서민들의 반봉건 투쟁이 반영되었으며, ㉢ 개성이 확대되었고, ㉣ 상품·화폐의 경제가

25)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1』(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1), p.3.

반영되는 쪽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학적 측면에서는 ① 선진적인 문인들 속에서 서민들의 미학적 요구에 맞는 보다 민족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을 창작하며 그의 사상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평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② 민족적 특성이 뚜렷해지고 소설을 비롯한 국문표기의 문학작품이 많이 창작되었고, ③ 평민층의 작가군이 등장하고 가사나 시조가 음악과 결합하여 사설시조와 잡가가 분화되는 등 담당층과 장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²⁶⁾

앞에 인용된 시대 구분의 체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현대문학의 기점을 포함하는 시대를 제 8,9권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8권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루어진 문학이, 제 9권은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 전개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동시대이면서도 상당히 다른 배경에서 전개된 문학을, 비록 한반도에서 이룩된 문학적 성과 가운데는 주로 무산계급의 투쟁을 다룬 문학들에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에는 일정한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은 70년대 이전 북한 내에서 권력투쟁이 김일성의 승리로 종결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이념으로 제창하면서 구축하게 된 체제의 안정에서 온 자신감에도 있지만, 김정일이 카프를 비롯한 일제 시대의 문학적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에도 있다..

고전문학에 관한 한, 『조선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문학사 자체의 독자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문학자들이 역사학계에서 정리한 시대 구분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문학작품을 작위적으로 대입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사학계에서 구분한 체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학은 자족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며 역

26)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4』(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4-27.

사 발전의 합법칙성과 일치한다는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학사를 문학의 고유한 내적 흐름을 다루는 독자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역사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시대의 작품을 논하면서 현존하는 기록을 무시한 채 그 실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가락국의 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는 「가락국기」 속의 <구지가>는 원시사회의 노래로 보는 반면, 기록상 성립 연대가 그보다 더 빠른 「단군신화」는 고대국가의 설화로 보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시대 구분상 후대인 가락국을 원시사회로 보고, 훨씬 전대인 고조선을 고대국가로 보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구술문학인 설화의 발생을 그런 국가 형태와 합법칙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인데, 이것은 역사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유물론적 문학관이 보여주는 경직성이자 병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조선문학사」에서는 시대 구분의 체계보다 오히려 서술 체계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 서술 체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서술의 체계

집체작인 「조선문학사」가 개인에 의해 씌어진 것과 똑같이 일관된 서술 체계를 지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표저자로서의 그 개인은 개성을 지닌 독자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 아래 뭉쳐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물개성적인 개인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서술된 「조선문학사」가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문학사」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주의와 주장으로부터 서술 체계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필자는 우선 「조선문학사」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을 통하여 그 서술 체계를 살펴본 다음, 「조선문학사」의 실제 서술로

부터도 체계를 추출하고자 한다. 「조선문학사」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문학사 서술에서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을 살려 주체성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대주의와 복고주의를 극복하고 조선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보다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게 시기 구분과 서술 체계를 세우며 새로 수집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작품들을 문학사의 옹당한 위치에 올려 세우고 매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역사적 공적과 제한성을 올바르게 천명하는 데 힘을 넣었다.²⁷⁾

작품 선별과 서술의 주된 원칙이 주체성, 당성, 계급성, 역사주의에 있으나 인민성과 진보성도 부가적 원칙으로 삼으며, 매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에 대해 공과를 서술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체성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반영된 작품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당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대표되는 당의 교시와 지적에 합당한 작품을 선별하겠다는 뜻으로, 계급성은 계급투쟁이 반영되고 피착취계급의 입장을 대변한 작가와 작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역사주의는 시대의 변천과 문학작품의 발생 및 전개를 합법칙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인민성은 인민들의 정서와 생활 감정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겠다는 뜻으로, 진보성은 당대 사회의 불합리성과 착취계급들의 부정부패와 반인민성을 폭로 비판한 작품을 선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정된 지면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원칙들이 실제로 「조선문학사」 기술에서 유형 무형으로 작품 선별과 서술에 반영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원칙들이 전제됨으로써 작품의 선별과 가치의 평가에 따르는 교조주의적인 경직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7) 전계 「조선문학사 1」 p.3.

그리고 메시지를 대표하는 작가들에 대해 공과를 서술한다는 원칙은 사회주의 체제 이전에 활동한 작가들, 특히 봉건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은 설사 그들이 인민들의 피폐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착취계급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당대의 사회에서 일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만큼 그 공적과 제한성을 모두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문학사』 서문에서 표방된 서술과 작품 선별의 원칙 가운데 가장 평이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사실 사회주의 체제 이전에 살았던 작가들 가운데 『조선문학사』에서 긍정적으로 거론된 모든 작가들에 해당할 정도로, 『조선문학사』 서술에서는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 높게 평가되는 작가의 하나인 연암 박지원을 통하여 실제로 어떻게 서술되는지 살펴보자. 그의 문학에 대해 『조선문학사』에서 “우리나라 사실주의 발전의 새 단계를 열어 놓은 귀중한 민족문화의 재부”²⁸⁾라며 한 장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역시 제한성이라는 부가 조항이 분명히 덧붙여진다. 그의 공적은 “선행하는 진보적인 미학적 견해를 계승하고 18세기에 더욱 발전한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성과와 경험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유물론적 미학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고 발전시”²⁹⁾켰으며, “절망 상태에 빠진 18세기의 리조 봉건사회를 적대계급간의 모순과 투쟁 속에서 묘사하면서 우선 량반 통치계급의 포악성과 잔인성, 그들의 비행을 합리화하고 미화하여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연막의 역할을 놓고 있는 량반선비들의 위선성, 내면적 허약성, 아침과 비굴성을 적발 폭로하는 데 주되는 관심을”³⁰⁾ 돌린 데 있다고 한다. 반면에 한문으로 씌어져 광범한 인민대중의 소유물이 못 되었고, 주제 사상적 내용에서

28) 사회과학원 주제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5』(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p.255.

29) 전계 『조선문학사 5』 p.221.

30) 전계 『조선문학사 5』 p.253.

나 구성 조직에서 혁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에서 유교적인 개념과 고사들을 적지 않게 쓰고 있고, 특히 근대소설의 주요 특징으로 되는 세부묘사의 구체성을 보장하지 못한 데에 그의 단점이 있다고 명시하기도 한다.³¹⁾

『조선문학사』의 서술 체계는 일반에서 구체로, 보편에서 특수로의 순서를 취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선 역사 일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한 다음에 그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적 현상을 서술하고, 다음으로는 문학의 발생과 발전의 역사적 합법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당대 문학의 일반적 특징 및 전대와의 차이점을 제시한 뒤, 구체적으로 작품을 거론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면서 설명할 때도 그 선별 방식에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흐름이 있다. 설화처럼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거나, 노동요를 비롯한 민요들처럼 노동 과정에 인민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창작된 작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술하고 평가하며, 그 다음으로 개인이 창작한 비판적 사실주의 혹은 반침략 애국주의적 영향을 가진 작품들에 대해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관적 의식 표출이 주된 서정적 작품들을 언급한다. 또한 그 존재 방식상으로 보자면 국문표기를 취한 작품으로부터 또는 한문으로 표기되었더라도 국어로 옮겨진 작품으로부터 한문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순서로 나아간다. 그러나 인민들에 의해 집단으로 창작된 한문표기의 작품들이 개인에 의해 창작된 국문표기의 작품들보다 먼저 서술되는 것을 보면, 전자가 더 우선되는 조건이었던 듯하다. 장르상으로 보면 대개 운문문학에서 산문문학으로 서술되지만, 장르상의 차이에 따른 순서는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하기에는 변화 요소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각 장과 절을 나누는 체계에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대상으로 하는 작가나 작품 자체가 집필자나 당이 내건 공식적인 목적의식에 크게 지배

31) 전계 「조선문학사 5」 pp.254-5.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곳에서는 수백 년간 이루어진 문학적 성과가 하나의 장에서 뭉뚱그려져 서술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하나의 장르나 사조 또는 작가가 하나의 장을 차지하면서 서술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시대마다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나 작가의 수가 균등하지 않다는 데서 야기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조선문학사」가 표방한 그 원칙들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들이 제시한 원칙에 합당한 작품은 과도하게 포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무시한 결과이다.

이처럼 「조선문학사」가 새로 조사·발굴된 작품들을 발빠르게 수용하고 일관된 관점에 의해 작품들을 해석·평가하여 보여준 공적은 있으나, 그 서문에서 표방한 서술 원칙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교조적인 측면으로 흐르게 되었고, 문학사적 실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못했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조선문학사」의 서술 체계가 갖는 공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IV.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북한의 학문 체계 및 국문학의 상위 체계로서의 사회과학, 그리고 북한의 문예 정책 및 창작과 국문학 연구를 지배하는 상위 원리에 대해 일별했다. 그리고 문학의 존재 시기와 존재 방식에 따른 체계 및 문학의 장르와 문학사 체계를 거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조선문학사」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넓혀서 국문학 체계 전반을 개관했다. 본고가 국문학 체계를 개관하는 논문이었으면서도 국문학의 상위 체계와 문예 정책에 대해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들이 국문학 자체의 체계와 연구 방식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주체사상에서는 다른 종류의 인간 의식과 마찬가지로 문학도 하나의 의식이며 사회 현상의 일부로 보는 유물론적 문예관을 견지하며, 그에 따라 문학의 변천은 역사의 변천과 합법칙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북한의 국문학자들은 고전문학처럼 맑스-레닌주의 유물론이 성립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도 항상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발생과 변화와 가치를 재단하고자 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그것을 지탱하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원리를 문예 창작의 철칙으로 삼고 있으며, 그 원칙들을 문학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 원리들은 작품의 해석과 가치평가를 지배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작품의 해석과 평가는 대단히 교조주의적인 데로 흐르게 되었다. 말하자면, 창작과 비평, 자료의 수집·발굴·해석·평가와 국문학사 기술은 서로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국문학 연구가 유연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문학사 기술이라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달리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그 존재 시기에 따라 보통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양분된다. 북한에서는 문학개론다운 문학개론서가 나오지 않아서 국문학의 장르를 구분하는 명시적인 체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선문학사』에서 행한 구분을 역추적하면 고전문학은 극문학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이 산문문학과 운문문학으로 2대분하고, 현대문학은 시문학, 산문문학, 극 및 영화문학으로 3대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고전문학은 장르 중심이 아니라 시대 중심으로 논하고 있어서, 고전문학에 관한 한 이론 장르보다는 역사 장르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면에서는 인민성의 원칙에 따라 인민 대중들에 의한 집단 창작의 설화나 민요, 참요와 같은 장르들이 높이 평가되며,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된 것은, 아무리 인민들의 끈경을 땀진하게 그렸더라도, 일정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철저하게 구현된 작품들을 주된 대상으로 역사 장르보다는 이론 장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현대문학에 관한 한 이론 장르가 주된 체계로 자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문학에서는 장르를 불문하고 모두 역사적 합법칙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작품들만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김일성의 혁명투쟁을 그린 작품들에서 그런 경향은 특히 농후하게 나타난다.

문학은 그 존재 방식에 따라 구술문학과 기술문학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한동안 한문 문학이 창작된 경우에는 구술문학, 국문 기술문학, 한문 기술문학으로 3대분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한데, 북한의 학자들도 그렇게 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술문학 가운데는 한문 또는 국문으로 기술된 채 전승이 단절된 것도 많으나, 북한에서는 전승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술문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실제로 한문으로 기술된 구술문학은 상당한 정도로 수집되고 번역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그 작품들이 계급성과 인민성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문 기술문학은,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계급성과 인민성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비록 양반 사대부의 생활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윤색 출판한다. 그리고 한문 기술문학은 주로 주제에 따라 반침략 애국주의적이거나 인민들의 곤경을 묘사하고 집권층을 비판한 사실적인 작품들을 위주로 논의하고 번역한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문학의 존재 방식이 그 가치를 평가하는 주된 근거인 것이다.

북한의 문예 이론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수천 년간을 이어온 서정·서사·극이라는 3분법의 장르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만, 종류와 형태를 구분하여 종류는 類개념으로, 그리고 형태는 種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에 서정·서사·극은 종류가 되고, 소설·서사시·가사·서정시·희곡·가극대본 등은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구분으로부터 더 이상 발전된 논의를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에서의

문학 일반론은 상당히 뒤떨어지게 되었다. 사실은 문학 일반론뿐만 아니라 국문학개론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북한의 문예이론에서 신조로 삼고 있는 문학의 역사주의적 원칙과 공산주의적인 인간학이라는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인 문학작품들이 모두 역사적인 합법칙성을 지니며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고통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문학사상에 존재했던 여러 장르들과 상당수의 작품들이 논외로 될 수밖에 없으며, 국문학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가 되어야 할 훌륭한 국문학개론서가 출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국문학사서는 계속하여 출간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문학 연구의 최종적인 도달점은 국문학사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당의 노선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작품의 조사·발굴·해석·평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문학사의 개편 작업이 진행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확립된 후 일제 시대에 이루어진 여러 문학작품들과 작가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평가하고, 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조 문학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발굴이 일단락된 90년대에 이르러 문학사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 15권으로 기획된 『조선문학사』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문학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는 그 동안 새롭게 이루어진 문학 연구의 모든 결과가 집약되어 서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최종적으로 『조선문학사』의 시대 구분 체계와 서술 체계를 검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었다.

본고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소홀히 다룬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북한의 국문학 체계 전반에 대한 개관이었던 만큼 중요한 몇몇 문제들에만 집중해서 논할 수는 없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2, 3차년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국어국문학회,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1990.
- 권영민, 『북한의 문학』, 공보처, 1996.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1996.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1994.
-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 이형기·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 I』, 고려원, 1990.
-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고려원, 1990.
- 池敎憲·沈慶昊 외,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 통합문화연구소, 『김정일과 북한 문화예술』, 199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문학예술사전』, 평양, 1989.
- 교육도서출판사 편, 『국어문학(고등중학교 5학년용)』, 평양, 1990.
- 교육도서출판사 편, 『국어문학(고등중학교 6학년용)』, 평양, 1989.
-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2) 종자와 그 형상』, 평양, 문예출판사, 1988.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1-5 및 8-1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외, 1991-1995.
- 정성무, 『시대와 문학예술 형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정룡진·강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문학 경도사(3)』,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정홍교·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한중모·김정용·김준규,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2) 문학예술 형태』, 평양, 문예출판사, 1992.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